

포스코 ICT (022100.KQ)

스마트팩토리를 선도하는 기업

포스코는 일부 라인에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 불량률을 20% 개선. 이후 19년까지 66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했으며 포스코 계열사도 이를 적용할 계획. 포스코 ICT는 포스코그룹내 IT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화로 수혜를 받음

포스코 그룹 내 스마트팩토리를 주도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 IT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두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동사는 스마트팩토리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16년부터 포스코 일부 공장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진행하였음. 포스코는 스마트팩토리 도입 이후 불량률이 감소하고 생산효율성이 증가하자 66개 공장의 스마트팩토리화 시점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포스코 ICT가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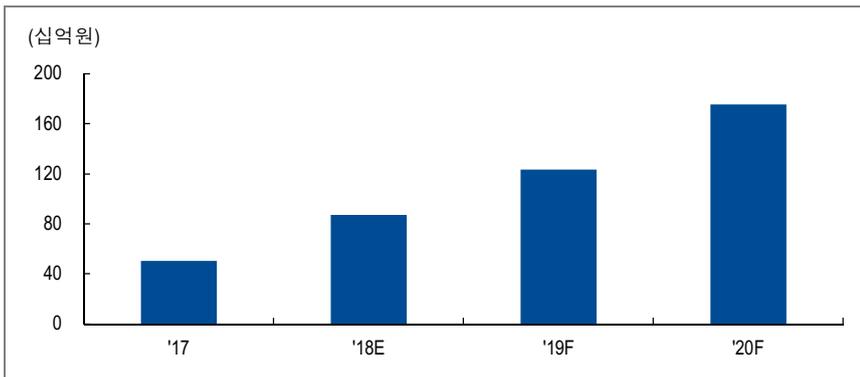
이외에도 포스코켄텍, 포스코강판, 포스코엠텍, SNNC, 피엠씨텍 등 포스코 계열사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

19년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 비중 11.5%

동화기업, 진합 등 비Captive 물량도 수주 받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액은 17년에는 약 500억원에 불과했으나, 18년에는 870억원, 19년에는 Captive 물량이 증가하여 1,230억원, 2020년에는 비Captive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75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 비중은 18년 기준 8.7%에 불과하나 19년에는 11.5%, 20년에는 14.9%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액 추이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Not Rated

현재가 ('18/10/5)	7,100원
업종	전문기술
KOSPI / KOSDAQ	2,267.52 / 773.7
시가총액(보통주)	1,079.4십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152.0백만주
52주 최고가 ('18/01/25)	9,300원
최저가 ('18/07/25)	6,110원
평균거래대금(60일)	5,111백만원
배당수익률 (2018E)	1.06%
외국인지분율	4.3%
주요주주	
포스코 외 3 인	66.3%

주가상승률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	1.6	-6.6	6.3
상대수익률 (%p)	4.2	4.9	-10.3

	2017	2018E	2019F	2020F
매출액	950.6	998.2	1,068.0	1,173.0
증감률	9.7	5.0	7.0	9.8
영업이익	56.1	66.7	76.9	88.3
영업이익률	5.9	6.7	7.2	7.5
(지배지분)순이익	41.9	-4.8	61.1	77.6
EPS	276	-32	402	511
증감률	13.5	적전	흑전	27.2
PER	30.3	-	17.7	13.9
PBR	3.2	2.8	2.5	2.2
EV/EBITDA	14.6	11.2	10.0	8.6
ROE	10.8	-1.2	15.0	16.7
부채비율	61.5	70.1	68.0	64.7
순차입금	-78.0	-66.7	-125.3	-195.7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EPS, PER, PBR, ROE는 지배지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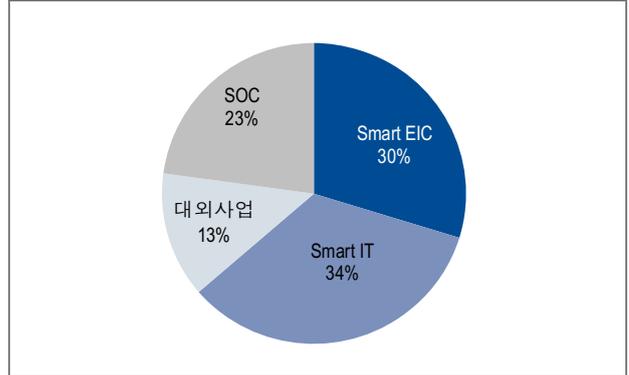
Analyst 손세훈
02)768-7971, midas.sohn@nhqv.com

기업개요

- 포스코 ICT의 최대주주는 포스코로 65.3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동사는 포스코 그룹내 SI(System Integration)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회사
- 동사는 제조업에 필요한 SI뿐만 아니라 주택 및 빌딩에 Energy Control, Smart O&M(운영·유지) 등 Smart Solution을 적용하는 스마트 빌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포스코 그룹을 통한 Captive 매출비중은 17년 약 75%임. 대외 고객사로는 동화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한국타이어, 한국전력, LG화학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 비중이 약 91%에 달함

제품 및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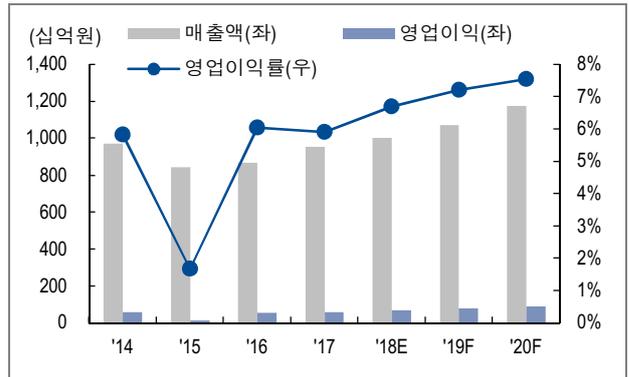
- 2018년 2분기 매출액 기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시스템 부문이 43%, 기간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용역서비스 부문이 40%를 차지
- 상반기 기준 비Captive 매출 비중은 약 28%에 달함



주: 2018년 2분기 기준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영업 실적 추이

- 지난 7월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으로부터 히다찌에 66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
- 본 건은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E&M 신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발주처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이며 2분기에 1회성으로 비용 반영
- 18년 3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순이익이 발생할 것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과거 주가 추이 및 주요 이벤트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유일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

포스코 그룹 내 SI 기업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 IT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강엔지니어링과 IT의 접목이라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서 포스코 그룹사 대상으로 ICT분야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향 매출 비중은 75%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캠텍 등으로부터 받는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7년 기준 Captive 물량은 약 75%에 달한다. 이외에 동사는 스마트빌딩,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비Captive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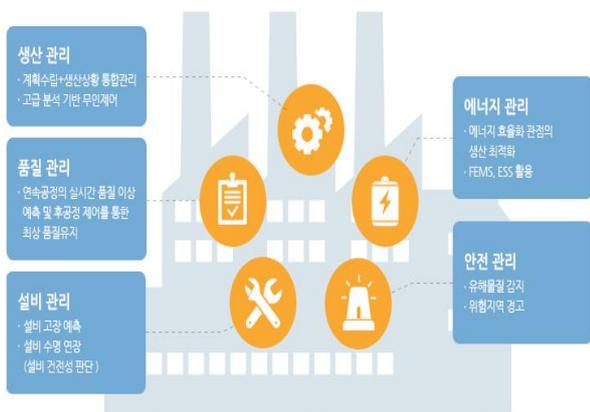
성장동력은 스마트팩토리

현재 동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이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연속공정 표준플랫폼인 포스프레임에 AI(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포스프레임 2.0을 출시하였고, 이를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 일부 라인에 스마트팩토리를 동사가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포스코는 불량률을 20% 이상 줄였으며 비용을 연간 약 51억 6천만원 정도 절감하였다. 가동률이 높아져 생산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포스코는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을 스마트팩토리 시범 공장으로서 지정하였다. 기존 포스코는 포스코의 66개 공장을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화 시킬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을 19년으로 수정하였다.

포스코 계열사도 스마트팩토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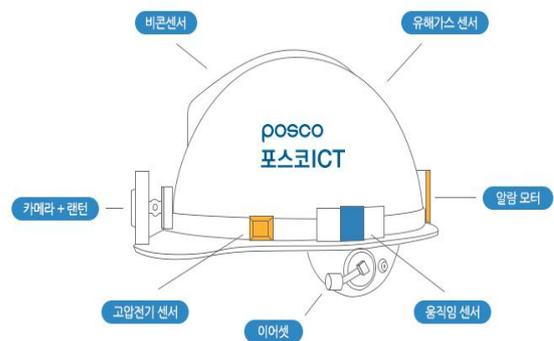
포스코 ICT는 계열사인 포스코캠텍(음극재공장), 포스코강판(컬러공장)에 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19년에는 포스코엠텍, SNNC, 피엠씨텍에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림1. 스마트팩토리 효과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스마트팩토리 구성 항목인 스마트 헬멧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포스코 그룹 이외에도 동화기업과 함께 동화기업의 Particle Board 공장(규모 24억 원)을 시범공장으로 선정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화기업은 PB공장 이외에도 국내외 9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진함으로부터도 포스코 ICT가 스마트팩토리 수주(규모 13억원)를 받아 19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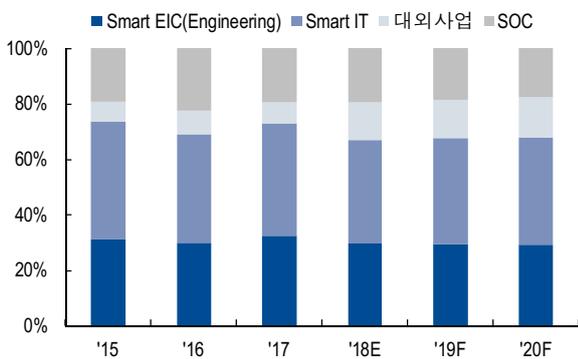
스마트팩토리 매출은 19년에는 포스코 그룹에서, 20년에는 비포스코에서 발생

동사는 포스코 그룹의 성과를 기반으로 점차 대외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액이 17년에는 약 500억원에 불과했으나, 18년에는 870억원, 19년에는 1,230억원, 2020년에는 비Captive 물량이 확대되며 1,75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사업은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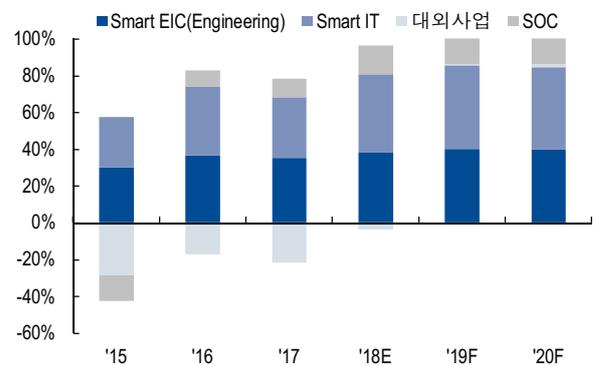
포스코는 13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인도네시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사는 기존 사업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7월 포스코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동사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2018년 전사 매출액 9,982억원, 영업이익 667억원, 19년 전사 매출액 1조 680억원, 영업이익 743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림3. 사업부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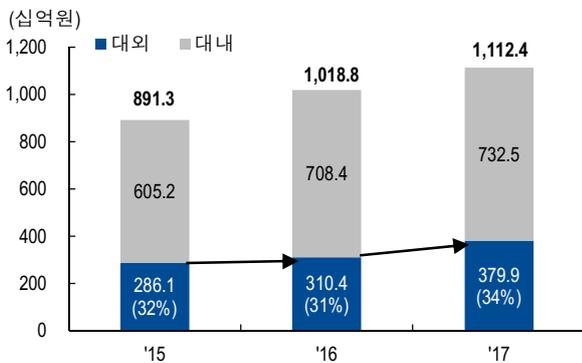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4.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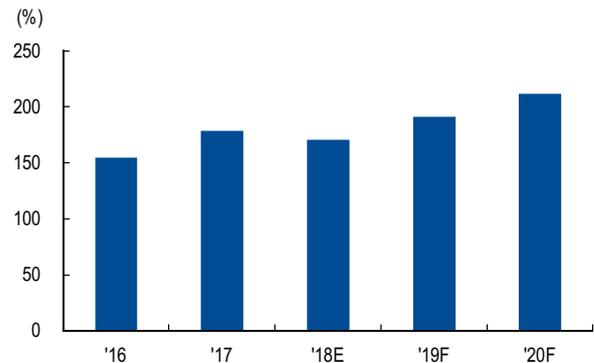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5. 신규 수주 추이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6. 현금 유동 비율



자료: 포스코 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